■ 재선 성공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자회견

"경제살리기 최우선 일자리 창출 총력"

박광태 광주시장

박광태 광주시장은 5일 "민선 4기에도 경제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0년까지 13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자녀가 고향에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결과는 개인의 승리라기보다는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위상을 드높인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다"며 "자동차·전자·광산업을 육성해 광주를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는 '1등 광주건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6·15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민족통일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를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해 시민들이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 복지, 환경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갈등과 앙금은 훌훌 털어내고 1등 광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주문했다.

박시장은 한편 최근 민주당 부대표를 맡은 것과 관련 "당에서 서열과 경륜 등을 감안한 측면도 있지만 당에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판짜기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연말까지 정계계편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새로운 일 하는 것 두려워해선 완돼"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5일 직무 복귀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일 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J프로젝트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카지노, 생물산업 등 지금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전남의 10~50년후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결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또 "합의해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자세를 가져야 화합과 평화가 가능하다"며 "시·도간, 동·서간, 시·군간 갈등을 모두 털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전남의 운명을 바꿔 나가자' 그리고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2가지 호소를 했었다"며 "앞으로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공석중인 행정부지사와 관련 박 지사는 "신임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이다"며 "지금은 단순히 행정만 알고 경제는 몰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가진 첫 정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광주·전남이 상생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해야만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다"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 두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정기적 모임을 개최해 상생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6·15 민족통일대축전 환영 오는 14~17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5일 조선대 경상대학 대형강의실에서 열린 '6·15 민족통일대축전 조선대학교 환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EEZ 협상 '독도기점 굳히기' 배경은

日 야욕에 단호한 의지 표명

정부가 12~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EEZ 경계의 우리 측 기점을 독도로 하기로 함에 따라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앞서 1996~2000년 네 차례 진행된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측 EEZ 기점으로 울릉도를 내세웠던 정부는 독도를 새 기점으로 삼아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선으로 주장하는 새 협상 전략을 세웠다.

'조용한 외교' 철회 공격적 전략

정부가 앞서 회담때 주장한 경계선 보다 좀 더 일본쪽으로 나간 선을 새로운 경계로 주장하게 됨에 따라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로 주장해온 일본측과 접점을 찾기는 이전 협상때 보다 더 어려워졌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장고 끝에 '독도기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독도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를 철회한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간 일본이 자기 측 EEZ 기점으로 독도를 내세워 왔음에도 우리 정부가 울릉도 기점을 고수했던 까닭은 EEZ 경계획정 협상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또한 독도 기점을 주장했을 경우 제주도 남쪽 암석인 도리시마를 자국의남측 EEZ 기점으로 삼는 일본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한·일 험난한 협상 예고

결국 독도 분쟁화는 피하면서도 실익은 챙기자는게 '조용한 외교'를 추구하던 시절의 정부 기조였던 셈. 그러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4·25 대일 특별담화를 계기로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결국 '독도 기점'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울릉도 기점을 주장했을 때도 일본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측 모두 독도를 자기 측 EEZ의 기점으로 삼게될 경우 합의점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양측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섬이 없는 터에 일본에 이어 한국도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됨에 따라 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합뉴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5일 광주에서의 강연에 앞서 정부의 한미 FTA협상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정태인 前 청와대 경제비서관 전남대 특강

"준비안된 한미 FTA 협상은 美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정부의 추진방향을 강력히 비난해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5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한미 FTA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정신병자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한미 FTA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FTA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뤄지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은 훼손될 여지가 많으며 한국의 앞날이 (나쁘게)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자관련 조항 등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는 사항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 진행중인 FTA 협상도 결렬 상태다. 결렬돼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FTA이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한미 FTA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정부에게 발언하고 요구해야 정부 역시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